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머무기에 귀 기울여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끊임없이
정의를 위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당파성이 생각에서 보편적 타당성에 함의되며'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a-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산인리빌리24 동관19층



경제민주주의, 왜 필요한가?

손봉호 (대표주관)

최근 우리나라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양대 후보자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제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변혁을 함축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소수의 주주들이나 부자들이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생산자 등이 같이 행사하고 토지나 물 같은 기본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라 한다. 이런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해야만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나는 가난, 실업, 기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론적인 주장의 타당성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논의할 문제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제민주화는 아마도 상식적인 수준의 것일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경제의 힘이 지금보다는 덜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았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 외에 별로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형성되고 법률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상당할 정도로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만 개인들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권력과 결정만이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경제의 힘과 경제적 결정이다. 과거에는 정치적 불평등과 자유의 박탈이 사회의 큰 문제

였지만 이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 권력이 경제를 통제했지만 요즘은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총리 부재 시 내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했지만 지금은 경제관계 장관이 부총리가 된다. 돈이 정치적 권력이나 권리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민주화만으로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결정이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에 의하여 이뤄지고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은 다만 소비자의 자격으로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뿐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생산자의 이윤 추구에 수동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은 절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크게 좌우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전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충분히 민주화가 되었다 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맺은 또 하나의 소중한 열매는 부패 방지다. 막강한 국가권력이 분립, 분산되기 때문에 부패가 방지될 수 있고 기본적인 정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 총리 후보자가 비리의혹으로 낙마한 것은 민주주의가 부패방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예이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 지망자는 어떤 불법이나 비리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부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으나 국민에게 미치는 득실을 따지자면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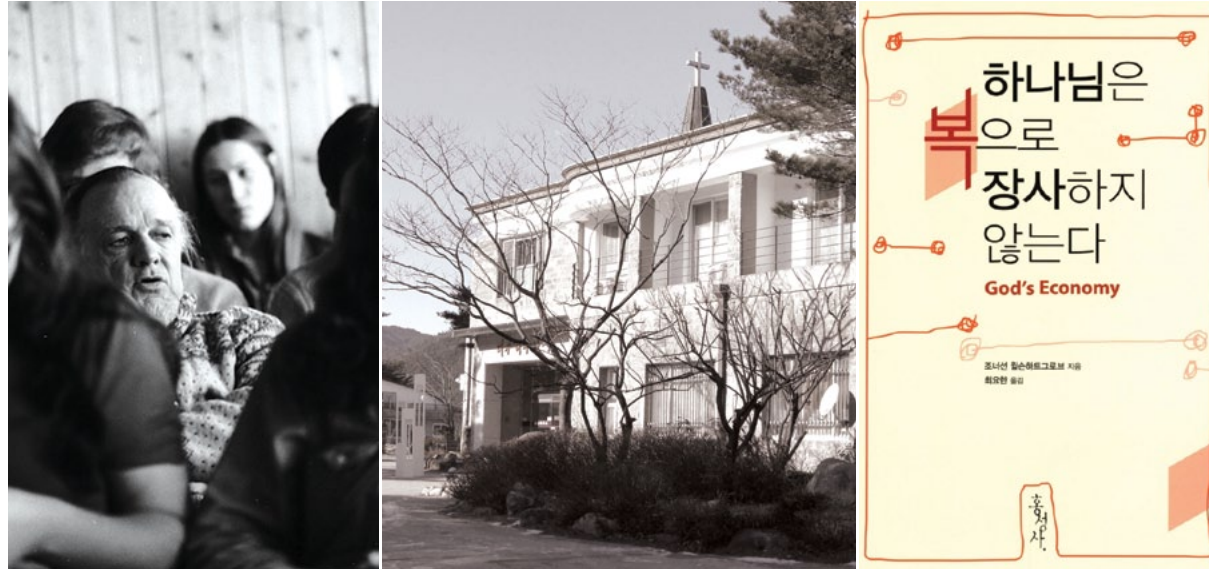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돈의 힘도 권력 못지않게 소수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며 그 결과는 권력의 부패보다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경제적 힘도 가능한 분산되어야 하고 계속되는 감시와 제재를 받아야 건전하게 행사될 수 있다. 생산 수단을 가진 소수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면 그런 힘을 갖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이 그 예이다. 기업의 부패를 방지하는 법이나 소비자의 선택만으로는 기업의 부패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 몇 년 전 전 세계에 금융위기를 몰고 온 월가의 부도덕은 법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미국에서 자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패가 상당히 심각하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2012년도 한국의 투명성이 2011년의 43위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세계 45위라 발표하였다. 이는 30위인 아프리카 보츠와나보다 무려 15위나 뒤쳐진 것이다. OECD에서도 투명성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한국의 투명성이 일본 수준만 되어도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매년 1.5%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부패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한다. 뇌물 때문에 비자금을 만드는데, 비자금을 만드는 기업의 경영이 투명할 수 없고, 이러한 회사를 근로자들이 신뢰할 리 없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와 기업에 만연한 부패이다. 이런 점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시급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이다. 기독교 세력의 저항도 문제지만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쟁에서 과연 민주화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쟁력 약화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시적인 후퇴를 감수하려면 돈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더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은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일 수 있다.



표지인물
프란시스 쉐퍼 박사 부부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이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06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5적 _성인경
- 13 한국 라브리공동체 소개 _편집부

SPECIAL

- 18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_황의서
- 22 민주화의 개념과 그 운영방향 _황의각
- 26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_한동근
- 30 하나님 나라와 경제민주화 _정운오

COLUMN

- 02 대표주간 경제민주주의, 왜 필요한가? _손봉호
- 41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_신국원
- 44 HOW.TO. 주일학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왜 필요한가? _유경상
- 49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필독서 사순절 묵상 "십자가" _신동식

CULTURE

- 55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8기를 마치며 _CMCA
- 59 유머 청력 테스트 _손봉호
- 59 가로세로

BOOK REVIEW

- 34 서평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_김태황

NEWS

- 58 사무국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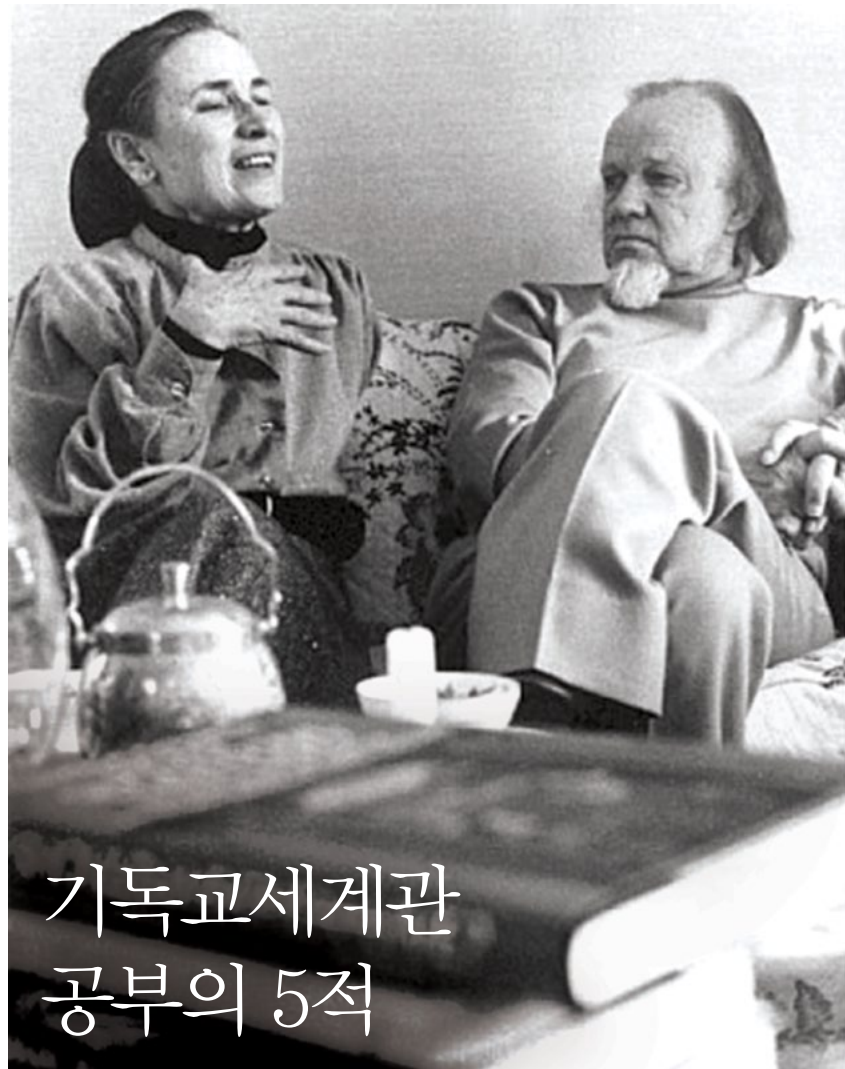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정호,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양해원, 장수영, 전요선, 정정호, 조영길, 최현일, 황의서
자문위원 김승욱,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디자인 황정희, 강새날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5적

⑥ 성인경 (한국 라브리 대표)

지난 1월, 2013년도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설악산 추양하우스에서 3박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함에 있어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오류, 즉 5적이 있습니다. 객관주의, 성경주의, 혼합주의, 영성주의, 통섭주의가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적 객관주의(objectivism)

“성경과 학문은 별개의 문제이다.”, 혹은 “신앙과 지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성경이 진리이지만 신앙 이외의 문제에서는 해당 학문과 지식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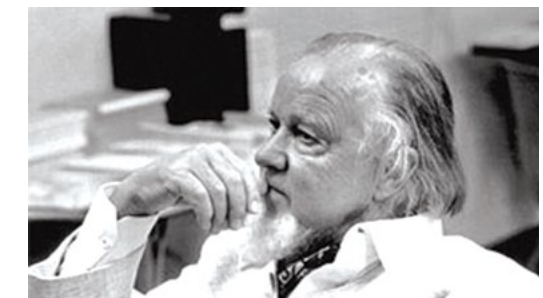
한 철학자는 그의 인생론에서 신앙과 철학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고 연구했다고 했고, 어떤 사업가는 성경대로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성경이나 신앙은 학문이나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신학은 증명이 불가능한 신앙인 반면, 학문은 증명이 가능한 지식입니다. 즉,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 고유한 권위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와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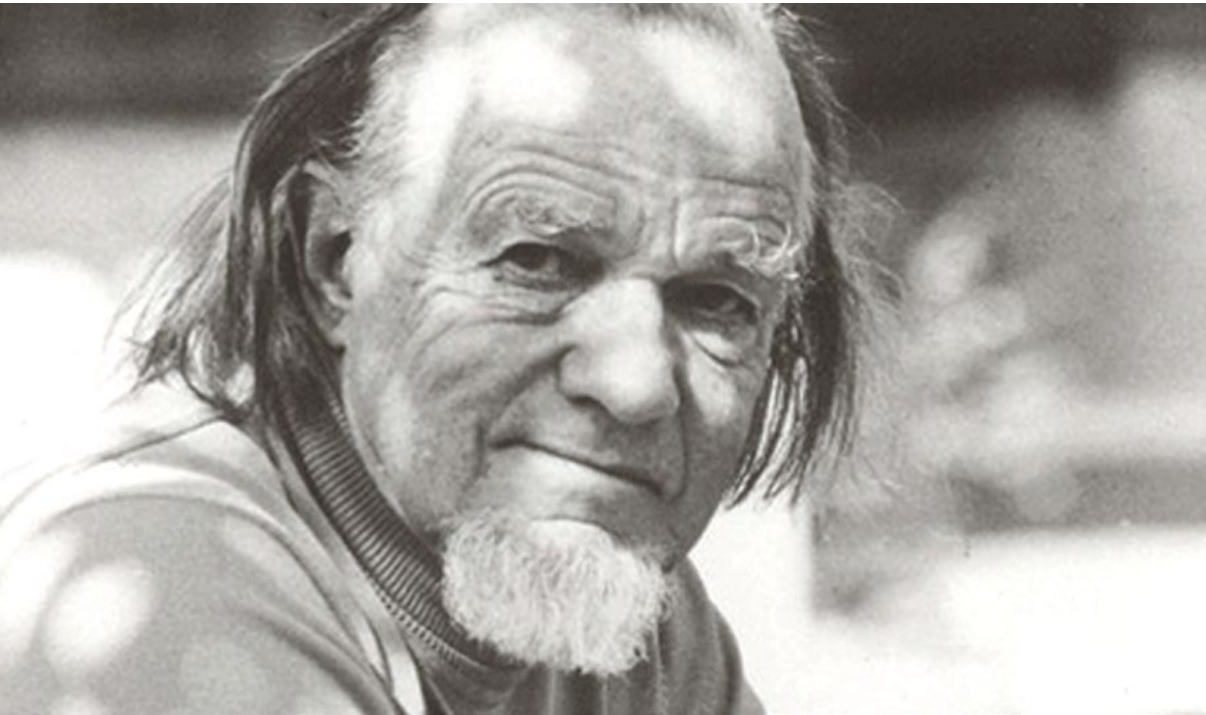
강영안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인식적인 영역에는 인격적인 요소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오직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 확증 가능한 지식만이 학문적 지식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마스덴은 이것을 ‘객관주의(客觀主義, objectivism)’¹⁾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혹은 지식인들이 이와 같은 객관주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과 학문을 별개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신앙과 학문, 사업 등은 양립 불가능한 영역으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객관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성경과 학문 혹은 신학과 사업, 직장, 생활을 분리하는 이원론(dualism)에 빠지거나 그것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루이스(C. S. Lewis)는 “이원론이야말로 기독교 다음으로 용감하고 그럴듯한 신조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세계 교회가 객관주의라는 미신에 빠져서 학문의 권위 앞에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거나 학문과 성경을 분리하는 현상이 폭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강영안, 조지 마스덴(G. Marsden)의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 학문세계, 기독교학문연구소, 2000년 5.6월호, pp.2,3.



제2적 성경주의(Biblicism)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며 세상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빌 3:8)처럼 말씀을 따라 세상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만 알기로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성경을 제외한 모든 학문적 지식을 배격하는 배타적인 태도는 결국 신앙에서 인식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마스텐은 이것을 신앙주의라 불렀지만 저는 성경주의(聖經主義, Biblicism) 혹은 성경 맹신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학문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이것은 영적 교만이며 지적 자살입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최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로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독교를 지성적인 종교로 천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17세기 서양 교회에서 일어난 경건주의(pietism) 운동과 20세기 세계 교회에서 일어난 반과학주의(anti-scientism)²⁾ 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뿌리, 곧 성경주의 혹은 신앙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상 열심히 공부해야 출세할 수 있어서 성경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³⁾

2) 17세기 서양 교회에서 일어난 경건주의(pietism)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지적 주도권(知的 主導權)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기독교는 비기독교적 학문에 종속된 채 반지성주의 집단으로 낙인찍혀 버렸으며, 서양 교회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온갖 이데올로기에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다. 반과학주의(anti-scientism)는 과학을 합리성의 총화로 보아 기독교의 신비성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신념 체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대 과학이 하나님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는 구조상 열심히 공부해야 출세할 수 있어서 성경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3적 혼합주의(syncretism)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세상 지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섞으려고 합니다. 상담 심리학자인 클랩(Larry Clabb)은 이 방법을 속칭 “샐러드식”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잡뽕’, ‘비빔밥’, ‘섞어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syncretism)는 세상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진리의 타협이나 양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 교회가 타락하고 몰락한 데는 오랜 혼합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철학적 혼합주의(고후 2:17) 외에 구약 호세아 시대의 “여호와 종교가 바알과 혼합되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 되니”라는 말처럼 정신적·영적인 혼합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조화주의(調和主義, harmonization)가 교회와 지식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화주의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것으로, 불교 용어로는 ‘융합’,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죽’과 같은 것입니다. 감지하는 우리 민족의 조화주의 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지 않은 지식 혹은 성경과 신앙으로 통합되지 않은 세상 지식이지 세상 모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나 전도 방법을 살펴보면 그가 학문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거나 예수에게 복종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들은 본래 일반 학문이나 사회에서 사용하던 단어들 성경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화목(reconciliation)’은 진노를 풀기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성전적 의미로(롬 3:25:5:10,11;고후 5:18,19), ‘구속(redemption)’은 저당 잡힌 물건에 제값을 치루고 다시 사는 상업적 의미로(롬 3:24:8:23;엡 1:7), ‘칭의(righteousness)’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법정적 의미로(롬 1:17:3:5,21,22), ‘화해(peace)’는 고아같이 집 잃은 자들이 가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입양되어 평화를 가진다는 가정적 의미로(롬 5:1:8:6;엡 2:14,15) 사용되었다.

“고구려 말에 연개소문이 유불도(儒佛道)의 삼교(三敎)를 조화하여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전개하여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꾀하였고,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삼교의 조화정신을 가지고 화랑도를 고취하여 구국운동을 일으켰으며, 고려 중엽에는 묘청이 삼교의 사상을 조화하여 고유사상의 창달로서 민족적 자주 운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조화사상을 조선조 말에 수운이 계승하여 삼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화하여 유럽의 천주교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수립하였다.”⁴⁾

지금도 어딘가에 삼교에 기독교까지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기독교와 동학의 접합을 시도하려는 한 안수집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다원주의가 무리익을수록 이런 시도는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쩌면 동양의 조화주의가 서양의 혼합주의를 만나면 융합, 종합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김지하, 동학이야기, 솔출판사, P.268

제4적 영성주의(spiritualism)

성령을 받으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쉽게 바뀔 수 있으며 공부조차도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영성만 좋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외쳐댁니다. 나는 이런 영성을 ‘괴물 같은 영성’ 혹은 잘못된 ‘영성주의(spiritualism)’ 혹은 ‘성령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성주의는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가 할 일까지 대신해 주시거나 면제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 면제하거나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전반에 증거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한 구절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성령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네가(you)”이기 때문입니다(롬 8:13).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번역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는 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이러한 영성을 “수동적 적극성(passive activity)”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성주의는 사상과 생각에 무관심하도록 부추깁니다. 가끔 잘못된 성령의 불꽃놀이에 빠져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공부하는 뒷전이고 학문과 신앙을 통합해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기도와 전도에만 열심을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자기 연구 과목을 충분히 소화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억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종 능력과 은사가 진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성령의 생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기거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만 집중하고 성령의 생각에 무관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영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5적 통섭주의(consilience)

어떤 사람은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학문을 일관된 이론의 실로 꿰매어 보자고 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범학문적 연구(凡學問的 研究, trans-disciplinary studies) 혹은 통섭(consilience)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학문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하버드대학교의 윌슨입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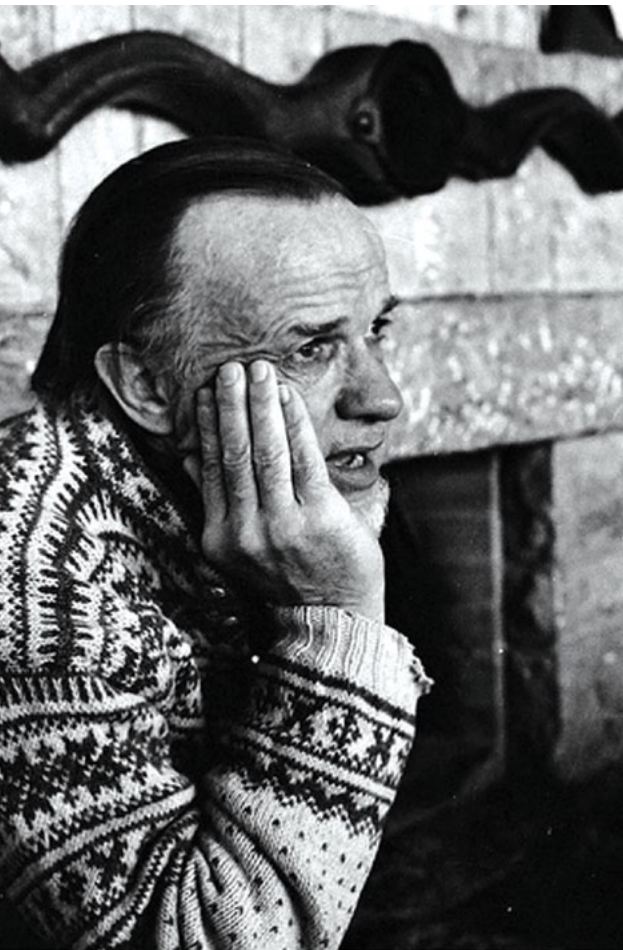
그러나 본래 통섭(consilience)이라는 말은 영국의 자연철학자 휴얼(William Whewell)이 학문 간의 넘나들음도모하자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함께 솟구침(jumping toge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⁶⁾

5) Edward O. Wilson, 통섭(Consilience), 최재천, 장대익 역, 사이언스 북스, p.21

6) 최재천, 통섭의 식탁, 명진출판, p.11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성령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네가(you)”이기 때문입니다(롬 8:13).





이를테면 월슨은 다윈이 적자생존과 자연선택론을 생물학 연구에서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멜터스의 인구론과 경제학에서도 발견한 것처럼 학문간의 통섭 혹은 넘나들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여러 학문간을 연결해 보고 넘나들어 보는 것은 대범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각 영역이 갖고 있는 독특성과 고유성이 파괴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그들이 제안하는 '깨매는 실'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경제논리, 복지, 행복 등 매우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해보이는 '실'은 종합적 진리나 근접성의 진리를 찾던 이전의 방법론보다 훨씬 개인화되고 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섭이라는 말이 어렵고 대중적이지 못하다 하여 '융합' 혹은 '융합적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융합연구소, 삼성융합연구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융합은 불교적 용어로 선과 악, 쾌락과 극기 사이에서 진리를 찾는 다분히 중용적인 방법입니다.

맺는 말

미신(迷信)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거나 이성적 마비 증세를 일으켜 막연한 기대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 공부의 5적에 빠지면, 성경적인 통합을 망각하고 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非)진리에 비상착륙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야 할 시기에 어처구니없게 지적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기도취와 만족에 빠지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객관주의, 성경주의, 혼합주의(조화주의), 영성주의, 통섭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인경 설악산 기슭에 있는 라브리선교회(L'Abri Fellowship) 한국 대표로서 국내외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이다. 한동대학교에서 '성경과 문화'를 강의했고, 월간 <복음과 상황> 편집위원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실행위원으로 섬기기도 했다. 저서로는 <대답은 있다>, <프랜시스 웨퍼 읽기>, <진리는 살아 있다>(이상 예영커뮤니케이션),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낮은울타리) 등이 있다.



한국 라브리 공동체



본 사진은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실시되었던 설악추억하우스 전경입니다.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 **목표**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는 연구실이나 교실이 아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브리 일반 학기와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세계관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한국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개발된 한국 라브리만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교회의 내적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과정**

기본과정으로 기초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요청에 따라 학생, 구도자, 대학원생, 사모, 교사, 교회 지도자, 법조인, 기업인, 의료인, 선교단체 리더, 예술가 등을 위한 특별과정을 단기적으로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 **기간**

1~2주 과정에서 5~10주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인 개방 기간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연중 코스도 가능합니다.

● **협력**

현재 지역 교회뿐 아니라 예수전도단, 다리놓는사람들, 기독교생회(IVF), 유학생수양회(KOSTA), 두란노서원, 누가회, 기독교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강의요청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 **특징**

1. 공동체 생활 속에서 노동과 토론 그리고 기도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몸에 익히도록 합니다.
2. 구도자들이나 불신자들도 같이 공부하므로 서로간 세계관적 차이와 갈등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합니다.
3. 국제 라브리 선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경험한 노하우와 프랜시스 웨퍼의 작업을 기초로 진행합니다.
4.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국제적 사안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5. 차세대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013년 겨울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2013년 겨울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산 추양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성인경 대표), 미디어 바로보기(김주동, 예담학교 교사), 지속가능성의 조건(황성주 박사), 정의란 무엇인가(성기진, 철학도), 교회다운 교회(정성규, 예인교회 목사), 샬롯 메이슨의 교육학 읽기(김주희, 사모), 교육학에 들어온 인본주의(서배성, 운양초교 교사), 현대인에 들어온 과학주의(이춘성, 양양중앙감리교회 협동목사), 랩브란트 감상하기(성혜진), 조선 왕조실록 번역론(임자현, 동양고전 번역가), 청년들의 3대 고민(서은철, 내수동교회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월드뷰의 지면을 통해 앞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라브리 펠로우십 소개

● 라브리란?

라브리(L'Abri Fellowship)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이자 학숙(學宿)입니다. “라브리”는 불어로 “피난처”를 뜻하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영적 피난처를 지향합니다. 1955년에 프란시스 쉐퍼 박사 부부(Francis & Edith Schaeffer)가 스위스 알프스 산기슭의 위에모(Huemoz)란 동네에서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세계 여덟 군데의 학숙과 두 군데의 자료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도가족이 있으나 회원이나 회비 제도는 없습니다.

● 라브리의 철학

라브리는 영적 생활이나 사고뿐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답을 찾도록 도와주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브리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진리(眞理)이며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찾아오는 손님, 학생들의 질문과 문제들을 신중하게 논의합니다. 라브리는,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정직한 대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라브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종교, 역사, 심리학, 교육, 정치, 사회 등 현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라브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라브리는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나 이념이 아니라 죄지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이며 만물의 존재 양식에 부합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 위에서 라브리는 다음의 세 가치를 강조합니다.

1. 영적 실체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과시되어야 한다.
2. 성경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상관성을 가진다.
3. 사회적인 윤리, 즉 사랑과 공의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 공부, 강의 및 토론

라브리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self-study)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브리에서 제공하는 특별과정을 제외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은 없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또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사(worker)와 의논해서 자기만의 맞춤 교육과정을 정합니다. 물론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은 그룹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이 적으므로 대개 혼자 연구하게 되고, 때로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라브리에 오실 때에는 어떤 분야를 공부할 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브리는 수양관이나 기도원이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숙(residential study center)입니다. 라브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는 라브리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및 일반 서적이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어 및 영어 강의 테이프와 CD를 통한 공부도 가능합니다.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을 제외한 손님, 학생들은 간사들과 1:1 상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집니다. 간사는 공부과정을 제시하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문제들을 상담해 주기도 합니다. 상담은 대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므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차 한 잔 나누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라브리 근처의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하며 대화하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라브리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상담료나 수업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개인 공부 위주이기는 하나 특별과정이나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

일에 한두 차례 제공되는 강의에는 개인 공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참석을 권합니다. 강의 주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도 종종 제공됩니다. 때에 따라 방문 중인 학자들의 특별 강의나 시사성 있는 특정 주제가 강의될 때도 있습니다. 강의 외에는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 정도가 특별 혹은 공통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개인 공부와 강의 외에 라브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토론입니다. 자칫 개인 공부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공부의 이점들을 라브리는 토론을 통해 살려냅니다. 공부하다가 생긴 의문점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커다란”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어야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브리에서의 열린 토론은 의외로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브리에서는 주로 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을 합니다. 식탁은 토론 중에 야기될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장소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놓고 신나게 토론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두 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습니다.

라브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이 있는 곳”을 모토로 합니다. 라브리에서는 정직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어떤 주제라도 꺼낼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질문이라도 라브리에서는 환영합니다. 라브리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대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브리는 공부와 강의,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라브리가 모든 답을 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며,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문의 _____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라브리선교회 (215-811)
Tel 033-673-0037 Email yangyang@labri.kr
홈페이지 http://www.labri.kr/



전체
관람가

프란시스 슈페어 Dr. Francis Schaeffer'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프란시스 슈페어 박사의
(서구 사상과 문화의 융성과 쇠퇴에
대한 대서사 장편 다큐멘터리"

프란시스 슈페어 최고의 역작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과 지성인이 보아야 할
세계관, 문화, 철학, 정치, 예술, 종교에
관한 역사적 통찰

2 DISC
Total Running Time:
5시간 20분

Amazon customer 리뷰

"단일 당선이 '기독교 영웅'이나 '철학적 박사'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슈페어 박사는 상황에 대한 깊은 역사적, 과거의 문화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영웅이 일생을 낳는다'라는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지하고 있다. 이 DVD는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 ★★★★★

"이것은 프란시스 슈페어 최고의 업작이다. 슈페어는 여기서 자신적이고, 능숙하고, 생생하게 역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단계 이후 과거가 없는 끝없는 흐름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영화는 문화와 철학은 물론 많은 정신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훌륭한 교재일 뿐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의 관점에서 문화적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영화는 역사적 정권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을 담고 있다. 생애의 역사와 철학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와 현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유용한 지식과 통찰을 준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지를 본다. 이로 인해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Language : English / Subtitle : Korean / Colour 300 min

Dis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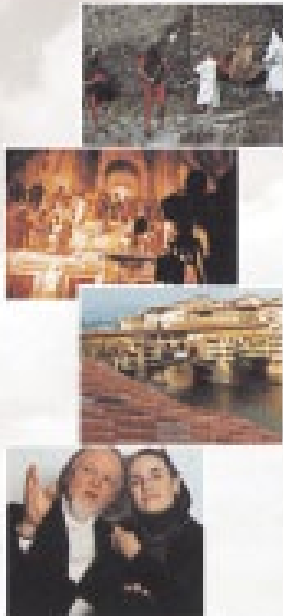
- 00:00:01 로마시대 (The Roman Age)
- 00:00:02 중세 (The Middle Ages)
- 00:00:03 르네상스 (The Renaissance)
- 00:00:04 종교개혁 (The Reformation)
- 00:00:05 혁명시대 (The Revolutionary Age)

Disc2

- 00:00:06 과학시대 (The Scientific Age)
- 00:00:07 비이성적 시대 (The Age of Non-reason)
- 00:00:08 파편화 시대 (The Age of Fragmentation)
- 00:00:09 개인적 행복과 부유화 시대 (The Age of Personal Peace & Affluence)
- 00:00:10 한 가지에 대한 (Final Choice)

Bonus Interviews

- 00:01:01 세상을 다시 살리기 - 고종과 임창익 함께 하는 삶
- 00:01:02 리브러리와 우리 삶의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



WORLDVIEW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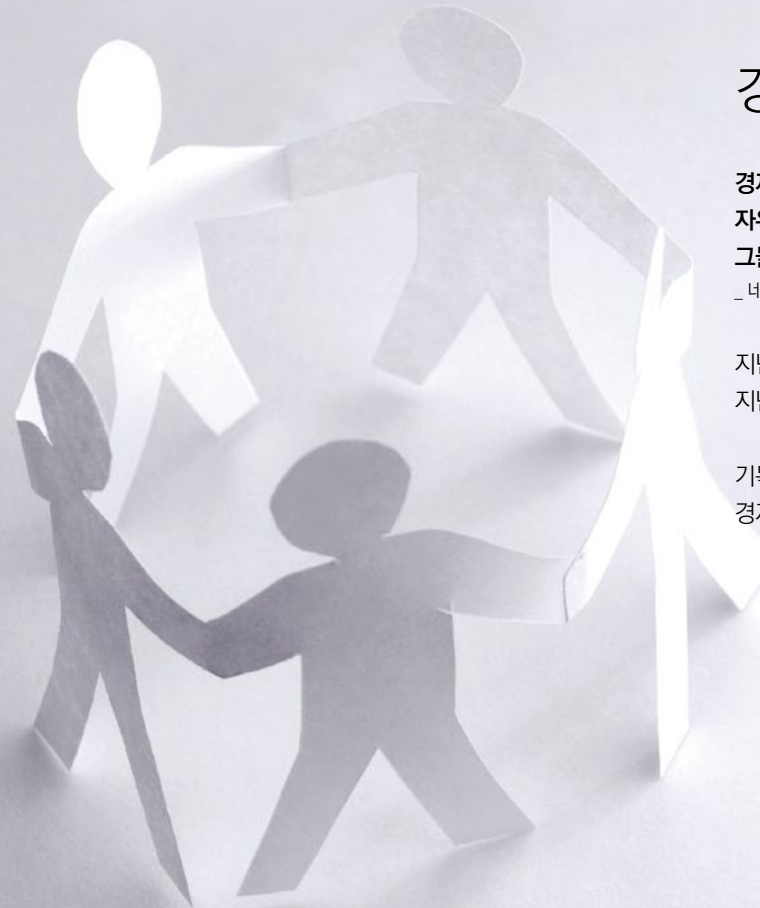
경제민주화 經濟民主化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
자유 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 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한다.

- 네이버 국어사전

지난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지난 대선에 양측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경제민주화.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사회참여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황익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와 정치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구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와 정치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부정적 느낌이 강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해왔다. 정치상황이 불안하거나 혁명적인 분위기에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재 체제하에서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뤄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유발하여 불균등하고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를 반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정치는 상생하며 발전한다.

대공황의 처방

1929년 전 세계가 대공황에 휩쓸리자, 경제학자 케인즈와 슘페터는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케인즈는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공황이므로 국가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수요를 창출해서 공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나라들이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적자를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케인즈의 이론을 추종한 국가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왔고, 이는 현재 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공황을 자본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으로 본 슘페터는 케인즈의 주장을 단기적 처방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집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독점 형태를 가져오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수의 자본가들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이권을 보호받고, 정치가들은 사회적 안정을 이유로 거대 자본을 감싸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는 다수의 경영인을 거느린 관리인, 대기업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공룡이 된다. 결국 소수의 자본가와 정치가가 나라를 이끄는 과두정치 구조가 탄생되며 사회는 소수의 것이 되고 역동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 집중으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경제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려면 사회가 경직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열려 있고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데, 슘페터는 이러한 사회가 오직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사회를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는다. 자본 집중은 경쟁 사회의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이 자본 집중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을 보완해야 한다. 경제논리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들을 정치논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Dollar exchange rate
 endorses stimulus package
 mutual fund
 MARKET JITTERS
 dollar weakens
 easing credit strains
 spending power
 slow revival
 mortgage
 Inflation
 Emergency loans
 Global trends
 CREDIT CRUNCH
Financial crisis
 Downturn
 Economic disaster looming
 SHARES WORTHLESS
 Worldwide
 survival in doubt
 Interest rates
 Stocks tumble
 assets
 STOCK MARKET
 slump
 risk
 liquidity
 key indices
 commodities
 currencies
Crash!
 MONETARY POLICY
 earnings
 announces trading loss
 offshore
 Govt. funds
 fear grows up
 Pension funds
 Global trends
 RECESSION FORECAST
 Bust!

슐페터의 이러한 주장은 독일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는데, 현재 독일은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었음에도 선진국 중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적은 나라이다. 독일은 민주주의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자본 집중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야기된 문제들의 근본적인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업 운영에 자본가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한 재정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경제공동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공동체의 삶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갖는다.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독일인들의 관심은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진출을 일찍부터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 모두의 합의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산업개발에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가는 경제민주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일찍부터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온 독일은 사회적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한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한국의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요구이다. 한국경제는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국가가 차관을 얻어 소수의 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정책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국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자본가들은 과거는 모두 잊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각하려 한다.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당하고 희생을 감수해온 국민들은 이러한 경제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 경제논리는 현재 소유자의 권리만 인정하려고 하지만, 정치논리는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한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논리로는 커져 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정치논리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이 한국에서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빈부격차는 단순한 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미흡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본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각한 자본 집중 상태에서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사회가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무분별한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위협한다. 산업스파이들이 활개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이다. 개인이 잘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가 든든하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된다.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한류가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한국 경제공동체가 강해지면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개인에게도 유익이 된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경제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불가피하다.



황인서 독일 쾰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한국 기독교 경제학회 회장(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사)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경제/경영 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통일 이야기』(아스미디어), 『경제와 신앙』(시그마프레스), 『세상을 이기는 30가지 경제 마인드』(행복한 집), 『경제발전과 경제윤리』(서광사)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유럽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민주화 논쟁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에 대한 인간의 주권과 인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힘을 가진 자본은 자연스럽게 자본 집중과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도록 창조주가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소수의 귀족과 지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셨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산이 분배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자살률도 높고, 삶의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투자한 돈에 비례하고 돈으로 만들어진 학력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균등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질주의로 인한 인권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애착을 가지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애착을 가지는 한국만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의 개념과 그 운영방향

황의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제민주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널리 회자(膾炙)된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체제에서 생활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해온 필자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휘상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합성어로 경제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려니 짐작했을 뿐이다.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생활의 한 국면으로 ‘절약’ 또는 ‘규모의 삶’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인간 활동’을 포괄한다. 한편 ‘민주주의’의 고전적 의미는 정치권력이 인민, 즉 사회 전체 구성원의 손에 있음을 뜻하며, 이는 만민 평등사상에 기초한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면 다수결원칙에 입각한 대의제도의 의결통치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경제 민주주의’란 경제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통제와 규제가 최소화되는 자유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그들이 추진하려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주요 정책목표로 발표하였다.

필자에게 경제민주화란 경제 영역 안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정책 목표에 담긴 경제민주화는 1,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던 사회화 정책, 산업 통제, 사회보장 제도 등과 비슷해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다같이 ‘경제 민주화’란 이름으로 내세우는 여러 경제 정책들은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 개입을 통한 복지후생 증진, ‘분배의 형평’, 즉 ‘분배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필자는 경제 주체들이 인간 윤리와 도덕을 갖춘 인간 본성의 틀 안에서 창의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efficiency) 제고를 기하면서 더불어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에도 역점을 두는 과정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도(social philosophers)들은 ‘개인의 자유’(personal freedom)와 ‘경제정의’(economic justice)의 개념 및 그 실천 방법을 두고 오랜 세월 씨름해왔다. 인류 역사상 다양한 사회정치 체제(socio-political systems)들이 두 원칙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했지만, 단 한 번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모든 정치경제체제가 이것을 지향하며 자기정체성 개선을 끊임 없이 모색하는 것은, 이 둘이 개인과 사회 후생(social well-being)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와 큰 정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각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부단히 수정·보완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다.

고도성장의 부작용

한국은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소득계층간 격차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경제운영의 주축 기능이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그 내재적 한계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 정권 후반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증대와 소득계층간 격차 해소를 통해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거구호와 공약을 통해 국론에 불을 지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두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도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정책당국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이른바 성장과 분배를 똑같이 중요시해야 한다. 성장이나 분배의 형평이 먼저냐는 답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의 논쟁처럼 순서를 확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먼저 성장해야 분배할 것이 생긴다고 보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분배의 형평을 기하는 것이 소비증대를 통한 성장의 선행조건이라고 본다. 오늘날 정치권이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가 모두 형평 우선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다분히 진보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즉 분배가 성장에 선행하는 방향으로 공약되고 있다.

정책이 표방하는 구호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표방하는 구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의 선급을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그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추진하려는 정책의 입안 과정과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 방안을 대안 정책방안에 소요되는 경비와 대비시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약정책의 동태적 타당성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대중적 표를 의식하여 충분한 타당성 분석 없이 졸속으로 제시한 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국가경제 향상과 국민후생 증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새 정부의 국민소득평준화와 복지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정책은 그 정책의 명목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공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

국가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우호적인 대내 여건과 예산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 경제 성장률이 2%로 예측되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 노령연금 2배 확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대학생등록금 반액 보조 등의 굵직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최소 135조 원(매년 27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 삭감에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은 유지되어야 세수(稅收) 확보가 보장될 터인데,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다. 새 정부는 조세율 상향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 방안과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소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지 않은 국가사업 부문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계획은, 마치 국회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전국구 의원제도를 폐지하거나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입법조치, 활용도가 거의 없는 의원보좌관 수를 1.2명 수준으로 줄이고,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자가운전 관행을 추진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과잉 관리업무수당, 휴가비, 여행경비혜택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혁명적 시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살신성인적이고 자원하는 애국심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낭비적 예산손실을 막고 의회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 아닐까?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안건들이 심의 및 결의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힘써 일하고 빠듯한 생활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정수당하는 선량한 국민은 누구나 이런 애국적 국회의원들이 자원하여 이 같은 안건들을 연구·검토하고 결의하는 역사적 순간이 오기를 소원해 본다.

국민 모두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

경제민주화 정책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며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 수행의지 그리고 과감한 실천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출에 소요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다음 세대에게 부채를 상속(전가)하게 되면, 국민과의 대선 공약은 좌절과 국민의 분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르친다. “너희 중에 누가 당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누가복음 14:28-30)

박근혜 정부는 행정부처가 청와대, 광화문청사, 과천청사, 세종시청사에 흩어져 있다. 따라서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고 세종시와 서울 간 특별열차 운행을 도입한다고 해도, 공직자들의 업무협약의 왕래에 소요되는 실경비와 시간 낭비는 계속 증대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용이하도록 재배치해야 행정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구와 행정 제분야의 과감한 통합조정 없이 국민과의 약속이행에만 집중하다가 경비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기하지 못해 중도 포기해 버린다면, 중국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낭비를 줄이지 않고 경제민주화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부채를 확대하면,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잠재 인플레이션 압박과 국민의 실질후생의 축소와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세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1. 경제적 약자의 확실한 권익 보호
2.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3.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4. 기업 지배구조 개선
5. 금산분리 강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가 발행하는 국민 부채를 차세대에게 상속(전가)시키면 다음 세대의 경쟁력 약화와 재정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분배 형평에 앞서 성장 우선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선(先)성장 후(後)복지이지, 선(先)복지 후(後)성장 정책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갈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국민을 설득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 균등화를 기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비록 자본주의 시장의 내재적 동인과 약육강식 성향으로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갈등을 정부가 조정·점검해 주어야 하지만, 지난 반세기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형평성에 중심을 두는 국가 민주주의(수정 사회주의) 체제보다 인류의 삶의 질적·양적 측면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황의각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Brookings Institution MacArthur Scholar,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과 연구교수였으며, 일본 ICSEAD 수석 연구위원이었다. 주요저서로는 『The Korean Economies: A Comparison of North and South (Clarendon Press Oxford, 1994)』, 『The Search for a Unified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Springer, New York, 2010)』가 있다.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한동근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제양극화, 경제민주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정치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이라면,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정치에 등장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그만큼 큼을 반증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경제양극화의 개념에 대척(對蹠)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양극화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 부가가치 창출 등 생산 활동에서 중간계층이 얹어지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허리가 튼튼해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의 양상과 정도는 사회통합과 성장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선 소득 측면을 살펴보자. 소득분배구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이다. 매년 지니계수가 커지고 있다면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이후 악화되는 추세이다. 1992년 0.245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0.295까지 상승하더니, 2011년에는 0.289 수준이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누는 소득5분위 배율도 소득의 불평등을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1992년에 3.72배, 2009년 4.97배, 2011년 현재 4.82배 수준이다. 또한 한 사회의 중간소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1년에는 7.1%였으나, 2011년에는 12.4%로 높아졌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1.7%에서 67.5%로 줄었고 빈곤층 비율은 19%에서 20%로 증가했다.

양극화 진단

소득분배구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산분배구조이다. 주요 자산에는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만 따진 지니계수는 2000년 0.57에서 2010년 0.62로 악화되었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지니계수는 2005년 0.66에서 2010년 0.70으로 상승해 부동산 자산분배에 대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추세도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5년 땅부자 상위 10%(약 500만 명)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98.3%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50만 명)은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분배의 불평등은 임대료 및 지대 수입의 불평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분배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층의 확대도 양극화의 또 다른 단면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5분위 배율은 2003년 8.7배에서 2011년 10.3배로 증가했으며, 노년층 소득의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 숫자는 급증한 반면 중간 일자리의 비율은 감소했다. 여기서 상위, 중위, 하위 일자리

는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임금 수준이 좋거나 나쁜 양 극단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리본형'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임금 소득자 중 중간 임금(중위 소득의 66%~133%) 소득자 비중은 43.5%에서 35.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간 소득자 보다 낮은 하위 임금 소득자는 23.2%에서 26.7%로, 중간 소득자 보다 높은 상위 임금 소득자는 33.3%에서 37.9%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양극화는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학력별 임금격차, 높은 사교육비에 의한 교육 기회 등 양극화의 그림자는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간 침체에 시달려 온 일본,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 급성장을 경험했던 중국과 브라질,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쟁격화와 약자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념적 영향력을 강화해 온 신자유주의 사상과 그에 기초한 경제·사회·국제질서의 확립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신뢰하여 자유경쟁이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규제 완화, 정부개입 축소, 세금 감면,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 자유무역 추구, 관세 인하,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 철폐 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경쟁에서 패배한 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 보호제도는 약화되었다.

경쟁격화와 함께 약자가 숨 쉴 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혁명과 물류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저임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과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체크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이나 서비스,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판매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물류의 발달과 판매장벽의 완화로 소비자들은 세계 어디서나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승자독식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나 약자의 입지는 급속하게 줄어들어 버렸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단숨에 세계적 스타가 되는가 하면, 탁월하지 못한 가수는 밥 벌어먹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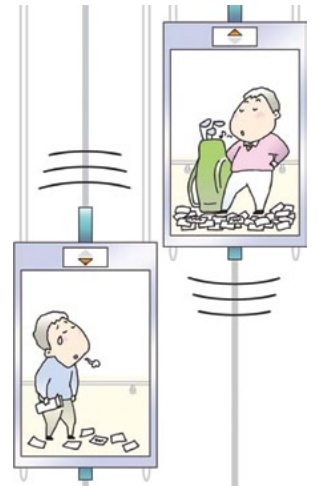
노동절약적인 기술의 진보

급속한 기술의 진보도 양극화를 가져온다. 진보하는 기술 대부분은 노동절약적이다. 로봇과 자동제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이다. 기계는 지치지도, 불평하지도 않으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한다. 무한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연히 자동화 투자를 늘린다. 이러한 자동화 기계를 제어하고 통제하며 설계하는 고급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겠지만, 고급인력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결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빈곤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로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충격이 다른 나라로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도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된다. 세계 구석구석이 무역으로, 자본 시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구석진 곳에서 발생하는 충격도 금방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되었던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물론 중국의 가뭄이나 러시아의 흑한 피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제 충격은 경기변동을 가져오고 경기침체 시기에는 보호막이 없는 빈곤층과 비숙련노동자, 비정규직, 노인층 등 취약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동근 영남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퍼듀(Purdue)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현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영남대 기획처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문위원, 대구시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결론

경기가 출렁일 때마다 양극화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약자는 가진 것을 잃지만,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이 그 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극화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확보와 판로에서 세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보통신 기술과 물류의 혁명을 거스를 수도 없다. 세계가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데 우리만 경쟁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경쟁에서 패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대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재원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나 세금강화는 자본의 해외탈출을 촉발하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열린 자세로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경제민주화

정운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들어가며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가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조금씩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소득과 기회(특히 고용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경제권력의 평등화를 의미하며 경제정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제민주화를 꼭 풀어야 할 과제로 보는 이유는 경제권력의 과점현상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68%를 납부하고 있으며, 하위 39%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의 소득은 41%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24%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은 상위 1%의 부(富)가 하위 90%의 부를 합친 것보다 크며, 펀드매니저 25명의 연소득이 뉴욕시 교사 80,000명의 연소득의 8배에 달한다. 후자의 통계에서 두 집단의 교육수준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전통적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교육수준으로 소득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폴 크루그만은 이러한 현상을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으로 설명한다.

얼마 전 발생했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의 대규모 시위는 바로 승자독식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월가는 미국 금융의 중심지로서 승자독식의 탐욕이 만연하고 또 당연시 되는 곳이다. 시위대의 피켓 중 하나인 “1%대 99%”는, 월가의 승자들이 1%의 부자라면 시위대는 빈곤한 99%라는 의미로, 경제양극화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잘 대변한다. 이러한 시각과 대중의 분노에 대해 마이클 포터는 “자본주의 체계가 포위공격 받고 있다(The capitalist system is under siege)”고 우려한다. 본고의 목적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세속적 시각과 대비하여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행동을 모색하는 데 있다.

왜 경제민주화인가?: 세속적 시각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justice)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happiness), 자유(freedom), 미덕(virtue)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방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사고를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견희 회장의 재산 중 100만 원을 노숙자에게 주면 이회장의 행복 감소분보다 노숙자의 행복 증가분이 훨씬 더 크므로 사회적으로 행복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에 따르면 부자 증세와 복지정책은 정의로운 경제민주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유를 인간의 절대기본권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자율적 권리, 특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자유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는 두 가지 사상이 파생된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극대화 되는 장소가 시장(marketplace)이므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도덕적/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덕을 입법화(예: 낙태금지, 동성혼인금지 등)하지 않으므로써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의 삶인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도덕과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존 롤스가 주장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자유롭

계 합의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원초적 평등상태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지위, 소유, 교육수준 등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상적 상태로, '무지(無知)의 장막 뒤'라고 표현한다.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합의할 원칙은 결국 평등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유 시장주의에 의하면, 부자 증세 등의 정책을 통한 경제민주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강요나 속임수가 없는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부를 획득했다면,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빈자를 돕는 복지정책은 개인의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존 롤스의 관점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정당화 될 소지가 높다.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합의할 원칙은 '부의 평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무지의 장막이 걷히면 나의 정체성이 이견회 회장일 수도 있지만, 노숙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식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포상, 영광을 안겨주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정의이다. 이 정의의 핵심은 권리나 포상을 받을 자격의 근거, 즉 '미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리나 영광을 안겨주는 목적 또는 본질(텔로스)이 무엇인지 따져야 하는 '목적론적 추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하철요금 경로우대 제도를 예로 든다면, 어떤 이들은 부유한 노인들에게까지 무료지하철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만일 무료지하철 이용권리 또는 영광을 주는 목적이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처럼 권리나 포상, 영광을 받을 자격에 관해 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서 '미덕'이 무엇인지 정해야 하는 '도덕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미덕으로 이해되는 정의는 도덕(또는 좋은/선한 삶)과 중립적일 수 없는데, 이는 '공리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이해되는 정의가 도덕과는 중립적(neutral)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미덕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이 질문에 매우 설득력 있게 답변한다. 경제양극화는 부자와 빈자의 삶의 현장을 분리시키고 공동체 연대의식을 파괴함으로써 시민의식, 애국심,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물론 빈자들이 부자들의 소유를 나눠가질 자격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공동체의 해체를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는 한, 미덕이라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경제민주화

지금까지 세속적 정의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평강(shalom)'이라는 코드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영광, 권리, 포상을 주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세속적 정의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필립 안시는 '은혜는 불공평하다(unfair)'고 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코드로서의 샬롬은 개인적 내면의 평강이 아닌 공동체의 평강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의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샬롬을 얻으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특히 상실된 공동체의 샬롬을 회복하려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가 경제문제와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신 10:17-19; 시 146:7-9; 사 58:6-7; 렘 22:3; 겔 18:5-8; 암 8:5-6; 숙 7:9-10).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이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사실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규례 중 부채탕감에 관한 것이 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신 15:1-2) 팀 켈러는 이 규례를 가난을 초래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인 부담스러운 장기부채를 무조건적으로 제거하는 일종의 공공정책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는 이삭줍기에 관한 것이다. "추수할 때... 네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네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레 19:9-10) 이것은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생계를 마련하도록 만든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기업과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이윤극대화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규례로 십일조 규정이 있는데, 십일조는 일차적으로 제사장 직분 수행을 위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한 규정이지만,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 나그

네 같은 빈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규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신 14:28-29). 이에 더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정적인 규례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희년 제도이다(레 25:8-55; 신 15:1-18). 당시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경제수단으로, 희년 제도는 경제양극화를 단번에 해소하는 부의 재분배 수단이었다. 50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토지를 다 팔고 남의 종으로 전락한 집안이 있다면, 희년 제도는 절망적인 가난과 빛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경제력의 집중과 심각한 빈부격차는 공동체의 샬롬을 파괴하는 큰 요인이다. 하나님께서 상실된 경제적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부채탕감, 이삭줍기, 희년 제도와 같은 규례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것이므로 은혜가 없이는 결코 시행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자(미 6:8),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5)는 말씀을 성취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샬롬을 이룩하는 것이다.

마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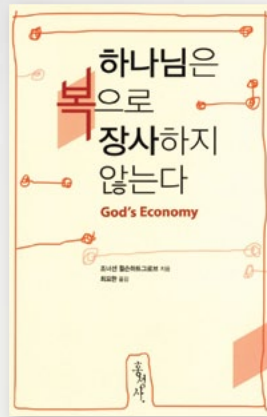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제적 문제, 즉 물질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제적 약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팀 켈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삶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한다.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근거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마 25:31-46)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채탕감, 이삭줍기, 희년 제도들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도 절실하다.



정운오 서울대학교, Cornell University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UCLA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를 회계학으로 전공하였다.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회계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한국회계학회 연구분야 삼일저명 교수이다. 온누리 교회에서 세계관학교 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 김태항 (영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너선 윌슨하트그로브 저
최요한 역 | 흥성사

말랑말랑한 책 한 권이 번역·출판되었다. 저자는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감히(?) 하나님의 경제를 들먹였다. 『하나님은 복으로 장사하지 않는다』는 우리말 제목은 세련되지 못하고 혼고적이어서 솔직히 정감 어리지 못하다. 그래도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의 다섯 가지 전술이다. 이 책은 원제 (God's Economy) 그대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제시한다.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최전선에서 세상 경제의 구성원인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복된 삶을 추구한다. 번역한 제목에서 강조된 ‘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한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은 선형적으로 다다이션의 속성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복이든지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빌게 (빌 福) 된다. 복을 주고받는 일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복을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보다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요령과 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면 주는 입장에서는 받는 자가 원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필요와 유익 여부가 더 중요하다. 복에는 받는 자를 위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난로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지나치게 단 사탕봉지에 자주 손을 내밀 때에 엄마의 사랑은 오히려 엄하게 꾸짖는 모습으로 아이의 눈동자에 비치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복을 주고받음에는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통해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대감과 활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은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획득하기란 힘들 뿐 아니라 자칫 곡해하게 될 위험도 크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일방적인 자기만족이나 아집으로 족쇄가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타기 위해 거래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젊은 시절 정치적 야망이 컸고 급진적 시민운동도 전개하였으나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수도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가 발견한 핵심이자 생각의 출

발점은 바로 세상 경제는 희소성의 경제이고 하나님의 경제는 풍요로움의 경제라는 것이다. 필자는 경제학을 공부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늘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즉,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공유하기보다는 독점하는 것이 이익이 되고 합법적인 방식이라면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그런데 저자가 단언하는 하나님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풍요로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풍요로움이 잠재되어 있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만나가 그렇고 오병이어의 결과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적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경제의 다섯 가지 전술은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들리기도 하고 소극적인 대응책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발상의 구조적인 전환과 실천 의지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다.



첫번째 전술은 역발상의 섬기는 경제가 되어야 세상 경제의 권세를 뒤엎을 수 있으며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기적 욕망으로 망가진 세상 경제의 잘못된 현실을 조롱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섬김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실천될 수 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해야 그나마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물 경제 현장에서 섬기는 행위로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하지만 저자는 “예수님은 실물 경제, 즉 증고차나 부동산 거래가 오가는 세상처럼 지지분하고 복잡했던 물질세계에서 일하셨다”(p.72)며 일갈한다.



두 번째 전술은 영원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투자 대상이 ‘영원’이라는 점이 주저하게 만든다. 사실 투자를 하려면 투자한 만큼의 원금은 물론 그 이상, 적정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보상의 실현 시점도 관건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영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즉,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도 있고 주변에 활용할 것도 많은데 ‘영원’이라는 긴 시간의 킁킁한 터널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저자는 단언한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것인가, 풍요로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이다.”(p.118) 영원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의 감각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된다.

세 번째 전술은 서로 의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제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우정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까? 너무 순박하거나 감상적인게 아닐까?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계약문화는 상호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 법 제도, 관행, 서명, 태도, 가격표, 증인과 증거 등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활동도 이뤄질 수 없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경제의 화두인 상생 또는 동반성장도 경제적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사실 ‘착한’ 기업, ‘착한’ 가게, ‘착한’ 가격 등의 ‘착한’ 시리즈는 저렴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뢰할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불의한 사람조차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성경의 예시는 경제적 친구와 우정의 공동체의 위력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전술은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경제도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랑의 대상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나라는 것이다. 돌보아야 할 대상은 교회 밖 세상에 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경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행동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다섯 번째 전술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존재 자체에 각인되어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경제를 실천하는 동력이 된다.

이 얇은 책의 매력은 곳곳한 경제학 지식의 옆구리를 말랑말랑한 먹거리로 툭툭 치고는 ‘나 잡아봐라’ 하며 앞서가는 이미지로 즐겁게 따라가 볼만하다. 복잡한 경제학 지식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단도직입적으로 속내를 드러내 보인다면, 이 책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돈과 권력에 망가진 세상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

보자고 경제적 친구들을 불러들인다. <하나님의 경제>라는 원 제목을 생각할 때 세상 경제학의 행복을 받아낼 수 있는 신비하고 강력한 경제 원리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세상 경제 원리를 맞받아칠 배짱과 목소리는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제 활동이 신앙에 근거해야 하지만 경제적 동인을 세분화하여 고찰함으로써 신앙과 경제 활동이 통합되는 전(全)인격적 행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일은 이 책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저자가 명쾌하게 기술한 것처럼, “우리는 권력에 집착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맥도날드의 글로벌 전술과 혼동해 왔다. 우리는 기업 형태의 조직을 도시와 시골 곳곳으로 확장하고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면 수십 억 영혼을 섬길 수 있으리라 여긴다.”(p.67) 하지만 우리는 덩치의 문제가 아니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편적인 일상 행위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김태황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현재, 건설교통부 내부규제개혁 심의위원이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H공사(구. 서울도시개발공사) 경영전략 자문위원이다.

2013년 신입생
현재모집중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o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4학년)



WORLDVIEW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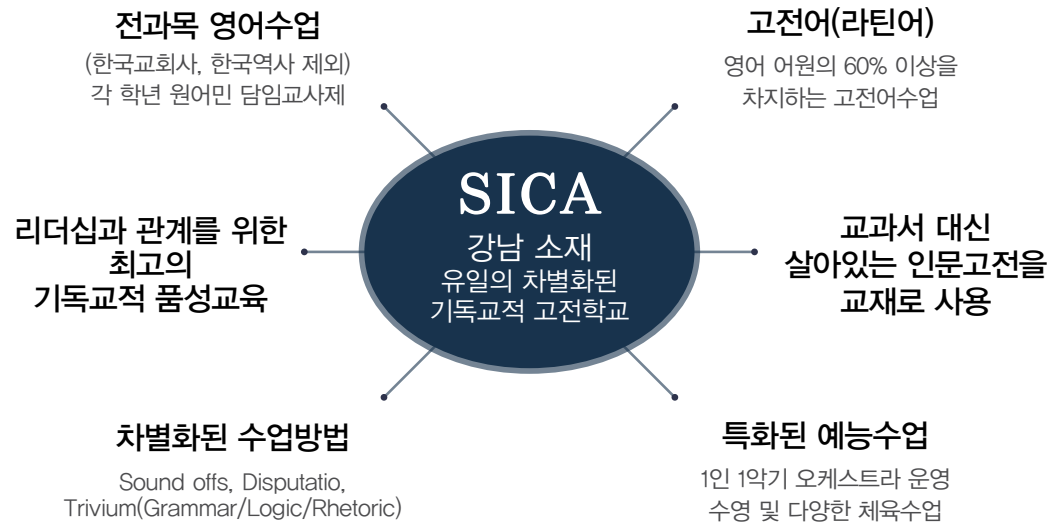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용할 지침서!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HOW TO, 주일학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왜 필요한가?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의 필독서!
사순절 묵상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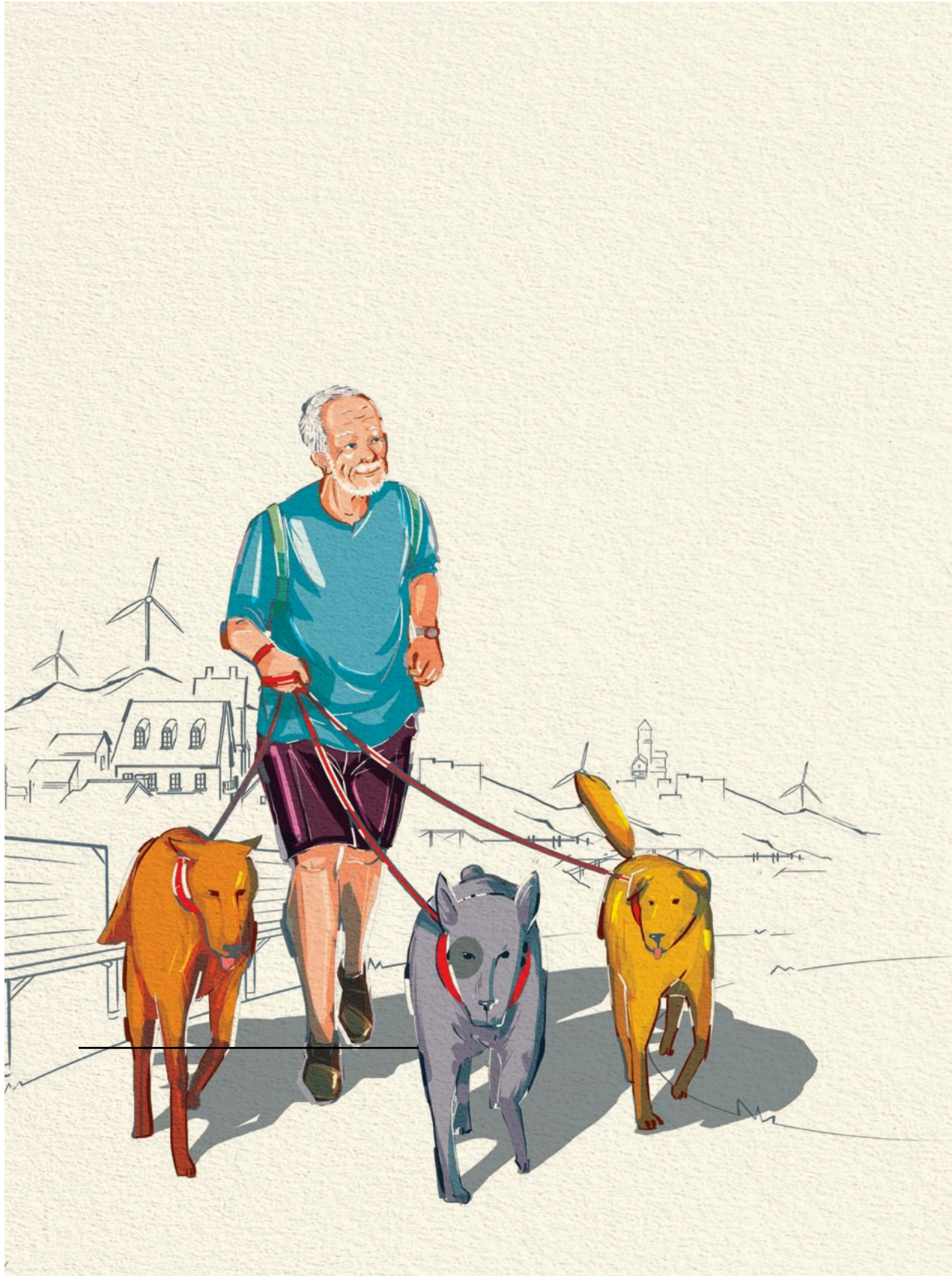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 02.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신국원 (충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새 학기를 앞두고 겨우내 애쓴 학생들과의 관계가 학교라는 세상 변수 앞에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Q1.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들은 꿈을 꿀 것이라?”
여기서 꿈은 비전인가요?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비전이 있을까요?

영원한 비전의 청년들

성경의 비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나 갈렙과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어 늙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은 늙을수록 밝아졌습니다. 육신은 약해져 갔지만 영안은 날로 밝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 11:10,16)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거치며 부활의 세계도 보았습니다. 비전의 빛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영원한 젊음이었습니다.

보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전을 잃으면 누구나 금방 노인이 되고 맙니다. 소망을 잃으면 늙어버립니다. 잘나가던 이들이 승진이 좌절되거나 명예퇴직 후 갑자기 나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 앞에 있는 꼴대를 바라보며 상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걸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6-18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Q2. 비전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 최첨단시대에 비전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나요?

눈을 밝혀주는 비전

과학기술은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주의 창이라 불리는 허블(Hubble) 망원경은 200억 광년 떨어진 별들을 코앞까지 당겨 줍니다. 텔레비전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미경으로 분자 속을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로 뼈속을 투시합니다. 내시경과 초음파 기계로 장기 내부와 태아의 성별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인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우주의 끝과 혈관 속까지 관찰하면서 정작 삶의 의미는 얼마나 밝히 보고 있습니까? 옛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햇살과 같아서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시 19편). 오늘날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간 이들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품고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적인 영웅이나 위인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살아간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안경입니다.

Q3. 비전의 안경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창조-타락-구속: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비전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요약하곤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성경 속 비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며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또한 타락으로 인생과 문화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의 진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옛 성도들은 이 비전을

품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후대를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저는 히 11장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 뒤를 이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뒤로 또 다른 신앙의 후예들이 이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행렬은 주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비전은 온전한 실재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구속과 하나님 나라이며,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비전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는 비전

성경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합 2:3

구약시대 말 애타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 말구유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삽니다. 구약 성도들이 꿈의 실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비전의 실체를 잡게 될 것

입니다. 아니 이미 믿음을 통해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은 항상 현재적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옛 성도들은 결코 먼발치에서 서서 잡히지 않는 꿈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전은 죄의 악몽을 깨우고 헛된 백일몽을 깨우쳐 줍니다. 젊은이의 눈을 열고 노인의 꿈을 되찾아 줍니다.



성경은 환상을 본 선진들의 이야기이며 꿈꾸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담긴 옛 성도들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도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들던 이야기'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우리의 응답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 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계단공과 <생명의 빛>의 교사용 교재로 함께 제공됩니다.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신국원 교수님과 총회교육부에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IVP) 등이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왜 필요한가?

유경상 (CTC 청소년세계관교육센터 대표)



“예배시간에 아이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아요. 휴대폰에 푹 빠져 있거나 친구들과 장난치며 떠들거니와 중요한 이야기에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복음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커져갈 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기가 힘드네요.”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예배시간에 빈자리가 많아져요.”

“훈전 성관계나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멍뚱뚱 쳐다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중고등부가 줄어드는데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신앙 훈련은 뒷전인 부모님들이 많아서 힘이 빠져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아니 그보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부모와 교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 만난 부모, 교사, 목회자에게서 자주 듣는 말들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진단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때 해결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1. 세계관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관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제(presupposition), 틀(frame),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세계관은 뿌리로, 행동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습관, 성품, 대인관계, 리더십 등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관이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청소년의 세계관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세계관이 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논리적·철학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시기이다. 한마디로 청소년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가장 시급하면서 적합한 시기이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생각과 삶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진리가 아닌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갈 것이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길 소망한다면, 그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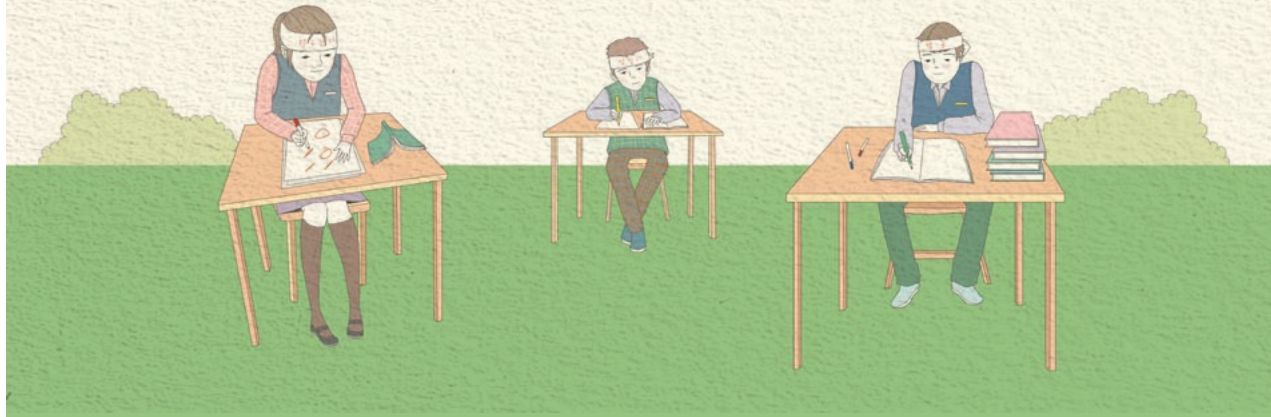
2. 오늘날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삶에서 키워드를 뽑으라면 '공부'와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청소년들이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공부'와 관련해서는 경쟁주의와 출세 지향주의를 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 보면,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고 대답할 뿐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를 답하는 경우가 드물다. 분명한 목적도 없이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세계관이 만든 열매로,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뒤쳐질 것 같아 불안해지는 것이다. 온전하지 않은 이 세계관대로 산다고 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 바라보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에 충실하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입시 사교육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세계관적 측면에서 볼 때 학교 교육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엄밀히 말해서 학교는 '사실'(fact)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 '세계관'(worldview)을 가르치는 곳이다. 최근 기독교 홈스쿨링과 기독교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청소년 대부분은 공립학교에 다닌다. 이것은 많은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립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들을 가르친다. 즉, 공립학교에서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대단히 시급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하는 것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가기 위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임을 알려 줘야 한다. 또한 교과서를 비롯하여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다.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역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미디어의 중독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세계관의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멀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미디어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실재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러한 사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이미지가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디어 속 인물들이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아이들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절제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미디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디어 문화를 변혁해 가는 사명을 감당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3.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육적인 면에서 학교와 더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 쇠퇴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교회학교의 침체이다. 이것은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교회 교육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일날 1시간 남짓하는 예배와 공과공부 위주의 교육으로는 교회 교육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조망하거나 가이드해 주는 교회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신앙이 종교생활을 넘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침투한 물질 만능주의, 권위주의, 성공주의, 기복 신앙 등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교회와 학교가 후천적인 교육기관이라면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회피할 수 없는 일차적 교육기관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길 바라신다(신 4:9-10). 인간은 가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 가운데 인격을 훈련받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특징은 부모들의 삶을 통한 모델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교육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은 교회에, 그리고 자녀의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물론 학교와 교회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요 역할이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해야 한다. 부모의 신앙이 종교생활에 그쳐, 부부관계, 재정관리, 드라마 보기, 자녀 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신앙 따로 살 따로'의 모델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셈이 된다.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의 학교교육이나 미디어 생활을 통해 전해지는 세계관을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삶은 점점 세속적 인본주의나 상대주의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과 교회와 가정의 교육적 상황은 너무나도 척박하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아이들의 현실은 그것을 이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낸시 피어시의 말처럼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시키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해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하는 훈련을 통해 사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싱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 두란노

사순절 묵상 도서
십자가

신동식 (빛과소금 교회 목사)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다. 3세기에는 황금의 입이라 불리던 크리소스톰, 16세기에는 루터와 칼빈, 17세기에는 사무엘 러더포드와 존 오웬, 18세기에는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19세기에는 찰스 스펄전이었다. 20세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마틴 로이드 존스이다. 시대마다 필요한 설교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20세기를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보내셨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설교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준 시대의 선지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부른다.

그의 책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다. 모두 현장의 육성 설교를 타이핑한 것으로, 그의 설교집은 마치 예배당에서 직접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그는 설교를 “불타는 논리”라고 하였다

『십자가』는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의 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것은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서 1963년 가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을 가지고 총 9번 강해한 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 그리고 신학적 토대와 인문학적 지식이 풍성해야 가능하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의 질문에서 설교를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소망한다. 또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꿈꾼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로이드 존스는 그 해답을 갈 6:24에서 찾는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 9편은 전체가 하나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1장에서 삶은 본질적으로 심고 거두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갈 6:7-8).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심고 영생을 얻는 자이다.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다. 참된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참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2장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문제를 세밀하게 다룬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십자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이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이다(p.46). 로이드 존스는 십자가가 거슬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결코 깨닫지 못했던 굉장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p.66).

3장에서는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임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는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임을 강조한다. 더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자비와 진리, 의와 평화가 모순 없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

4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p.108).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기게 해줌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5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6장에서는 십자가와 평화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 세상이 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혈통의 교만과 탐욕의 교만과 지식의 교만 때문이다.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평화란 없다. 십자가는 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

7장은 십자가를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십자가가 증인이 되어 인간 영혼의 소중함과 삶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본질, 심판과 형벌을 증언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이다. 동시에 십자가는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들, 가난한 이들을 초대한다. 로이드 존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일반 서민과 죄인의 친구였음을 강조한다(p.212).

8장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한다. 십자가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은혜 아래로 이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된다.

9장은 마지막 설교답게 이전 설교들을 다시 한 번 살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며, 사단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오랜만에 『십자가』를 다시 읽으며 로이드 존스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었고, 참으로 귀한 설교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설교를 '불타는 논리'라고 하였는데, 『십자가』는 그 정의에 잘 부합한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고 확신 있게 전했다. 다소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p.106)는 선포는 복음에 대한 그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벼운 설교들이 난무하고 긍정의 신앙이 교회를 휘감고 있다. 설교자들은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벼운 설교를 한다. 가벼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삶의 무거운 문제에 쉽게 넘어지고 만다.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마음으로 설교했기 때문이다. 죽어서도 설교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를 추천한다.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미션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문화와설교 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 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간의 사과 -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 변혁의 삶」,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승리」, 「변화는 가능하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 등이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월드뷰> 한 권이 당신에게 가기까지 3천 5백원

월드뷰 한권을 만드는 데에 3천 5백원,
커피 한잔의 값으로 한달의 풍요로움을 맛보세요.

앞으로도 월드뷰를 계속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에 정회원으로 가입, CMS로 통장에서 이체신청!
2. 온라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CMS 이체신청** 혹은 은행에 직접방문, 아래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
3. 아니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바로 신청해드립니다!
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가입시 혜택

1. 정기후원회원 : 매월 1만원 이상
2. <신앙과 학문> 정기구독(연4회 발행),
3.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투고자격
4. 월간지<월드뷰> 정기구독(연12회 발행),
5. 기부금영수증 발급(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높음)
6. 홈페이지 각종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가능
7. 홈페이지 50여편의 동영상 강좌 청취 가능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전화문의 사무국 대표전화 02) 754-8004
이 메 일 info@worldview.or.kr
후원계좌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 임원 및 조직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백석대 前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중앙대 교수), 박상은(생명원 의료원장),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전광식(고신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한정희(한양대 교수)
김성수(고신대 총장), 양승훈(VIEW 원장), 오정현(사랑의 교회),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조정민(CGN-TV 前사장), 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이강인(엘비전 대표)
감사 김원수((주)노바 대표),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조성표(경북대 교수)
부실행위원장 최현일(효산의과학생명연구원장)
실행위원 최태연(백석대 교수), 김미영((주)한국소토 대표),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원수((주)노바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혜정(도서출판 CUP 대표), 신국원(충신대 교수),
이건창(성공관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연구본부

본부장 장수영(포스텍)

기독교학문연구회 KCSI

학술지 <신앙과 학문>

세계관연구소

운동본부

본부장 조성표(경북대)

세계관운동

도서출판 CUP

대표 김혜정 마케팅실장 윤여근

월드뷰 (주)세상바로보기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교육본부

본부장 최태연(백석대)

세계관아카데미

교재개발연구원

CTC

대표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VIEW

원장 양승훈
이사 조영택, 박신일, 김명준, 김주영

사무국본부

본부장 최현일(효산의로재단)

대표간사 신효영
간사 홍경석, 김고운

지원팀

* 회계지원 : 상록회계법인
* 법무지원 : 법무법인(유)로고스

사역소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동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에
건강한 문화로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독립채산

기독교세계관 전문월간지 <월드뷰>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뱅크버 세계관대학원 VIEW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디플로마 과정 운영

크리스천싱킹센터 CTC
청소년, 청년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

출판사 CUP
세상의 지혜를 담은 컵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찬호,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김경현, 김경희,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진영, 황보난이,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식,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남진,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우,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운, 김정명, 김정섭,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철수, 김태운, 김항아, 김혜창, 김효태, 박기연,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총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원배, 이윤희,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항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장한일, 전충국, 정수빈,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대, 최 우,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구준희, 김영숙, 민수진, 백은미, 영양교회, 이주희, 최종규, 9천 임고은,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남,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은, 김대용, 김동우, 김막미,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중, 김영남, 김영완, 김용석, 김원,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정호, 김중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류익근, 류화원, 마민호, 박강국, 박능안, 박대원, 박두한, 박영주, 박정욱, 박종원, 박종원, 박종훈, 박진규, 박창우, 박창우, 박현경, 박해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서화진, 소중화, 손현택, 송미정, 송중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 석, 안용준, 양병국, 양성만, 양행모, 양혜원, 엄지은,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경상,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상현, 윤영희, 이경숙, 이계섭, 이관호, 이관철,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수, 이명수,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승연,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한길,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인숙, 장대준, 전명희, 전성구,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차봉준,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진우, 최현빈, 추진원,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백 정경식, 1만5천 김선화,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김광순, 김승욱, 김요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윤, 박영혜, 박 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항아, 양성만, 우시정, 윤동수, 이 건, 이근호, 이대환, 이명희, 이정규, 이현정, 전광학,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오의석,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임희욱, 장수영, 정동섭, 조우성, 최용준, 주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5천 김효순,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박문식, 박시운,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김태환, 박상은, 손봉호, 윤완철, 전광식, 차명실, 최태연, 12만 박동현, 36만 현창기

기관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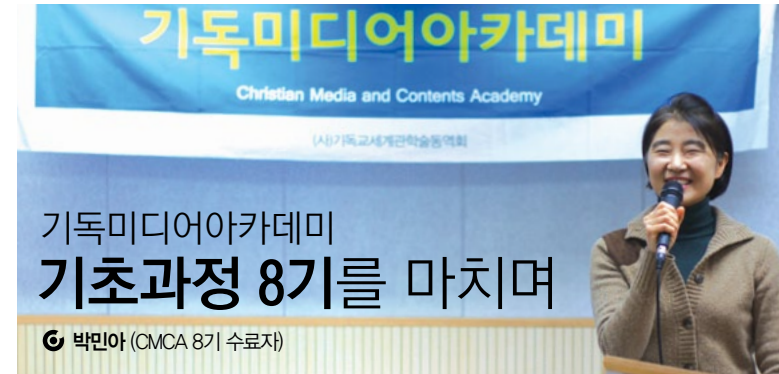
1만 개명교회, 크리스찬연애대책연구,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두레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백만 열비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8기. 그 4개월간의 교육과정이 끝났다. 졸업작품 시사회 및 수료식이 있던 2월 2일 토요일, 수료자인 우리들은 4개월 전 서로에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함께 개강예배를 드렸던 서울국제기독교아카데미에 다시 모였다.

영상캠프를 마친 직후부터 시작된 졸업작품 제작. 한 달 남짓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물인 만큼 시사회 시간도 진지했다. 4개월 동안 배운 영상이라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첫 걸음으로 우리는 총 6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장르는 다양했다. 드라마, 뮤직비디오, 범죄스릴러, 코미디 등. 모두의 작품에서 짚자면 그동안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내려고 애쓴 깊은 고뇌와 고생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프리미어(영상 편집기)의 '프' 자도 모른다며 편집이 어려워 투덜거리고, 컷(cut)의 개념조차 접해있지 않아 5컷 영상 스토리보드에 30분 짜리 단편영화 스토리를 그렸던 초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모두가 뿌듯한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강평에서 유지는 PD님 또한 놀랍게 발전한 8기의 작품과 그 열정을 칭찬하셨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는 2012년 10월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기독교 세계관 강의와 미디어 실무교육이 약 20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신국원, 이인용 강사님 등 한국 기독교계의 내로라하는 강사진들로 구성된 세계관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문화분별력,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경제관, 커뮤니케이션 모델 등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미디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세계관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배웠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며, 우리는 그 세계관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 예비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시사문화퀴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이슈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하는 훈련을 했다.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음을,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선배 실무자인 PD님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진행되었던 미디어 실무수업은 개인영상연출, 뉴스제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스스로 제작해보고 평가를 받았다. 이론을 공부할 뿐 아니라 직접 기획, 연출하고 발품을 팔아 제작하는 과정들을 통해 영상의 힘과 그 미학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영상캠프와 졸업작품 제작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동안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특정 콘텐츠에 담아내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획의도와 주제를 정하고,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와 장르를 고민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배웠다. 한정된 인력과 장소로 어떤 선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화면 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씨름하는 과정은 메신저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다.

이 과정 속에 무엇보다 값진 것은 팀 작업을 통해 느끼게 된 공동체 의식이다. 같은 비전을 품고 미디어라는 분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노력하는 사람들. 수료하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 만난 '인연'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폐회예배에서 손봉호 교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9절 말씀을 통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나팔이 아닌 분명한 소리를 낼 줄 아는 나팔이 되라고 하셨다. 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메시지, 듣는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거짓을 피하고 정직한 언론인이 될 것을 강조하셨다.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걸어주신 피디님들은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격려하시며 많은 경험이 빛나는 결과물을 낳게 될 것이니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짙고, 더 붙여보고, 더 만들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사회로 나가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라고 권면하셨다.

미디어가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생명을 말하기 위해 적지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의 길을 뚫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미디어라는 분야에서도 일하신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그 뒤를 이어, 주어진 길에서 생명을 말하고,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 8기 졸업작품

아래 작품은 기독미디어아카데미 학생들의 작품으로 해당영상은 CMCA홈페이지 www.cmc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조

조 원	기호전 이미란 금아름
장 르	드라마
제 목	향기
기획의도	눈에 보이는 외모나 현상으로만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요즘, 내면의 죄로 인한 고통을 "충치"라는 소재에 비유하여 우리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시놉시스	직장 5년차 대리, 노총각 김성훈씨는 건강염려증 증세가 있는데다, 엄살쟁이다.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 아침 일찍 일어난 상훈은 졸린 눈으로 양치질을 한다. 회사에서도 업무 중에 채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혼이 난다. 부하직원들에게도 입냄새와 비난하는 말투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김대리. 우연히 자신을 싫어하는 부하직원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상심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지만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진 이유가 입냄새가 아닌 남을 타하는 자신의 말투 때문임을 알게 된다.

2 조

조 원	유혜연 권해진 윤지원 조단비
장 르	드라마
제 목	You are special
기획의도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그릇.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의 특별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교할 때가 많다.
시놉시스	남몰래 정원을 좋아하던 단비는 정원에 해연에게 팔자를 선물로 주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한다. 단비의 생일에 뭔가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지만, 성의없는 친구들의 선물과 정원의 편지 한 장에 실망하게 되는데...

3 조

조 원	안성진 박민아 구하경 정창대
장 르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
제 목	흰수염고래
기획의도	외로움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나는 너희를 홀로 창조하지 않았다'
시놉시스	제출하는 보고서는 줄줄이 퇴짜를 맞는 사회초년생 성진. 주변 친구들의 취업 소식을 들으며 홀로 취직을 준비하는 민아. 그럼 그러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만 물감과 팔레트 살 돈조차 버거운 고등학교 하경.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만 같은 이들의 삶이지만 각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그것이 지친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다. 우리를 홀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상황일지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날 위로하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를 통해 세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은 기적을 경험한다.

4 조

조 원	이수원 김성혜 김찬미 김승득
장 르	법죄스릴러
제 목	가면
기획의도	문지마 폭행, 살인, 강도 등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법적인 대처도 확고하지 않는 지금 이 세상 배경으로 기획을 하였다. 그런 사건들의 뉴스를 접할 때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인을 비판하며 "이런 사건도 너네 하나님을 믿고 회개 하면 용서가 되냐?" 라는 목소리가 꼭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한 남자의 용서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담았다.
시놉시스	한 남자가 요즘 TV나 신문 등으로 문지마 폭행, 윤지마 살인 등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남자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며 이 세상을 비난하고 저런 아이들은 평생 공부이나 먹거나 사형을 시켜 버려야해라며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을 비난한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안부전화를 건다. 한밤중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어느 남자랑 부딪힌다. 이에 목소리를 높이며 한바탕 실랑이를 한다. 여자가 집으로 가는 중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는 기분에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갈 길을 가려는데 방금 전 실랑이를 벌인 남자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방안에 여자가 갇힌다. 남자가 여자를 해치려는 참, 전화가 오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사이 여자는 도주계획을 세우는데...

5 조

조 원	이주호 신효리원 장하라 황경수
장 르	드라마
제 목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중도독으로 생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기획의도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그릇.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의 특별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비교할 때가 많다.
시놉시스	고아원 출신의 하라는 고상한 취미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값비싼 물건을 순간적으로 손에 넣는 것인데 하라의 기술을 훔쳐 보면 한 남자가 하라의 삶에 접근하게 된다. 일방적인 이 단벌신사의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알게 되지만 하라에게는 의미없는 이 세상을 떠나려고 계획한 D-day가 다가오고 있는데...

6 조

조 원	주하은 정지원 제서연 이해인 (우승하, 김신영, 명재휘)
장 르	판타지 영화
제 목	86400
기획의도	나에게 하루의 시간만이 남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설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 기획의도가 있다.
시놉시스	시간이 곧 화폐인 세상. 실직자 최건우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비하는 삶을 산다. 게으른 생활의 연속으로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트레이닝 바램으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나오는 길에 건우는 나무위에 그린 그림을 팔고 있는 한 청년 곁을 지나친다. 장남은 조건없이 그 그림들을 주고, 건우는 생각없이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건우는 자동차와 충돌하고 넘어진다. 건우의 생체시계는 손상된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린 건우는 병원에서 자신의 생체시계를 확인한다. 생체시계에는 '24시간' 이 남아있다. 황급히 병원을 나와 ATM으로 급히 달려가는 건우. 충전을 하려고 하지만 기계에 생체시계는 읽히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24시간 밖에 허락되지 않았다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에 빠진다. 차가 막혀 길 위에서 벌써 2-3시간을 써버린다. 집에 온 건우는 초조함에 생체시계만 바라보고, 고치는 방법을 검색해보기도 한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 죽기 전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보고 싶어 연락하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친한 친구들마저 바쁘다고 말하며 삶이 얼마 남았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체념하듯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밖을 나선 건우. 30분 정도 남은 시간에 길을 걷다가 장남을 만난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건우는 계속 흘러오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다. 장남은 잠이 든 건우를 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건우의 시간을 사고가 나기 전 시간으로 원상복귀 시켜준다. 눈을 뜬 건우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체시계를 보니 교통사고 나기 전 시간으로 복구되어 있고 장남은 그 자리에 없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 8기를 보내며

유지는 PD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지난 2월 4일 토요일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ICA에서 기독미디어아카데미 8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짧고도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격려하는 자리에 앞서 학생들의 열정과 수고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졸업작품을 시사회하는 시간은 학생들에게나 지도한 피디들에게나 설레고도 떨리는 자리입니다. 장르도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주연 배우로 혹은 카메라로 등장할 때마다 까르르 박장대소가 터져 나옵니다. 기독교나 성경, 교회 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대신, 20대 초중반을 살고 있는 청춘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이야기들 속에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에는 이제 막 영상을 시작하는 초보들이었습니다. 초기에 MT를 가서 조별로 제작했던 첫 영상을 기억하느냐 묻자 그 민망함과 소위 오글거림에 모두 비명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도저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할지, 어떻게 찍어야 할지 알 수 없어 부끄러움 키득거리며 시사회했던 그들의 첫 작품이 지금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이제는 영상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법 세련되고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매기수 보는데도 또 감동의 눈물이 어립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생명의 힘에 놀랍니다. 핏덩이가 어느새 기고 서고, 엄마나 누나, 형이 하는 것은 자기도 하겠다며 따라 하기도 합니다. 말귀도 제법 알아듣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유독 말문이 트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맘마, 엄마, 뽀뽀를 한 지 한참인데 말다운 말을 하기까지 몇 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박또박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몇 년이 지나야 엄마, 아빠와 대화가 통하는 수준이 되고, 조목조목 자기 의견이 서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어렵고 신비한 과정 같습니다.

우리는 영상이라는 언어의 폭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웬만한 영상 언어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언어로 제대로 된 말을 하고 가치 있는 의견까지 조리 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작가가 아니라도 멋지게 사진을 찍지만 특별히 영상이라는 언어는 개별 이미지가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특정 이야기가 형성되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정서 등이 문자보다 때론 강력하게 소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도 민감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가치관까지 담을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를 기르는 일이 4개월 만에 완성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8기에 걸쳐 백여 명의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이 일에 도전을 받아 첫 걸음마를 내딛었습니다. 걸음마뿐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영상작품을 상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것은 이 파릇파릇한 꿈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기적적인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간증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곤 합니다. 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크고 놀라운데, 하늘에서 그 자리에 모인 스무 명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로울지 벅찬 감동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싸워야 할 세상 문화의 견고함을 이겨낼 무기 중 겨우 한가지의 날을 갈아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있다는 든든함이 행복이고 힘이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많은 젊은이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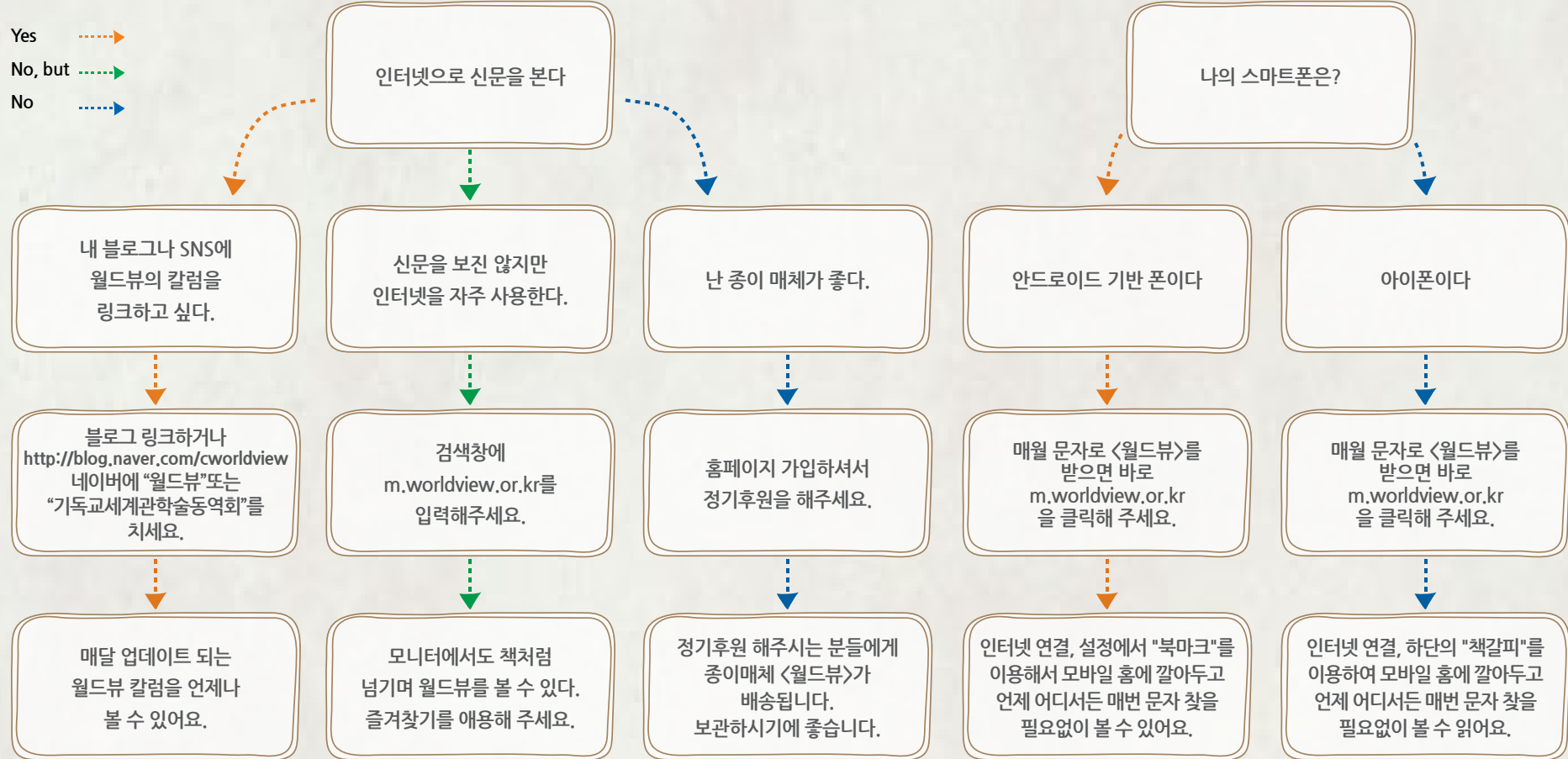
유지는PD 현재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영상언어 및 제작 등 미디어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미디어예술학을 전공하였으며 전 봄프로덕션 PD로 MBN(매일경제TV), EBS, 아라랑TV, MBC 등의 방송제작 및 삼성, 서울시 홍보영상 등을 제작한 바 있다.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당신에게 맞는 월드뷰 사용법!

매번 문자를 열어 월드뷰를 볼 필요가 없어요!



※ 핸드폰 모바일홈에 깔아두면 자동으로 매달 업데이트 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홈페이지에 정확히 모바일 번호를 기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회원 가입시 <월드뷰>를 메일로, 매월 마지막 날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꾸준히 제작되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십시오.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1.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2. 공동체와 함께 읽기

- 1) 카카오톡, 라인,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유가능
 ※월드뷰 문자를 널리널리 나눠주세요. 함께, 더불어 갑시다!
- 2) 서평도서 탐독하기 :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탐독 가이드. 1년이면 무려 12권 탐독!
 ※서평과 함께 책을 읽음으로 바른 믿음의 안목을 제시합니다.

3.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기독교세계관학교

- 1) 주일학교 멘토링 : 기독교세계관이 쉽다! 명쾌하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독교세계관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강의가 필요하시다구요?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최고의 강좌를 홈페이지에서 만나세요.
- 2)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교사 필독서 : 주일학교 교사의 삶과 역할을 키우는 힘!
 ※공동체와 함께 나눠요. 교사가 교사에게 권합니다.
- 3) HOW.TO. 주일학교 : 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소리, 지금의 문화 직시하기
 ※지금의 문화, 현장의 온도를 직접 체험하고 문제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당신의 바른 관점을 위해 "월드뷰의 세상바로보기"가 함께합니다.

3월의 기독교세계관 세미나

주제 :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사
 강사 : 김의원 교수 (백석대 전 부총장)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 저녁 7시
 장소 : 용산 사무국(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 및 접수 : 3월 5일까지 메일(info@worldview.or.kr)로 신청
 (신청시 이름/ 핸드폰/ 소속/ 직위 기재요망)
 참가비 : 만원
 문의 : 사무국(02-754-8004)

※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영적 상속의 기쁨을 선물하는
게리 토마스의 신간

골골 80세, No! 팔팔 100세, Yes!!
몸광 영광, No! 몸장 영광, Yes!!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에드 영_ 텍사스주 휴스턴 제이침례교회 담임목사
성전인 우리 몸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기쁠 때 우리의
영성도 성장할 수 있다. 이 책은 실제적이면서도 감화력
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이언 홀_ 하프마라톤 미국 기록 보유자
이 책을 쓴 게리에게 찬사를 보낸다. 꼭 써야 할 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강한 감동을 받았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몸에 깃든다

**내 몸
사용
안내서**
Every Body Matters

골골 80세, No!
팔팔 100세, Yes!!
몸광 영광, Yes!!
몸장 영광, No!

CUP

“늙어 힘이 없어지고 병들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신국번형 | 272면 | 11,000원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SAM 샘병원
Medical Centre

**Spring Up!
For the Best!**

미래로 도약하는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Global Mission Hospital of Cherishing Life through Excellence in Integrative Medicine & Holistic Healing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앙일반 국외부문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암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암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절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67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G샘병원 031 457 9114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9188 / 9388 | 관절전문센터 031 467 9167 | 뇌척추센터 031 467 9285 | 치과센터 031 463 4383
샘간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 샘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2 |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 467 1190
산전관리실 031 467 1020~1 | 만안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 샘병원교회 031 467 9335 | 장례식장 031 467 9700 / 9770

지금 다림질 중이십니까?

세상이 너무 구겨졌어
많은 사람들이 불평만 합니다.

여기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다림질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구겨진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힘들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배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
스토리 하나.

*2000년 3월 한동신문사 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한동대학교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 2) www.handong.edu 확인